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8,528.2	16.2	120,500	0.8	9.5	-2.8	-6.2	84.0	40.3	0.6	0.6	0.7	1.4
현대중공업지주	5,187.3	21.1	318,500	1.4	3.6	-8.3	-7.9	4.3	3.6	0.6	0.5	14.1	14.7
현대일렉트릭	395.9	6.4	19,450	4.6	-2.8	-30.2	-12.4	1.8	1.6	0.2	0.1	9.3	9.7
현대건설기계	853.0	11.8	43,300	0.5	4.3	-15.8	1.4	2.8	2.0	0.3	0.3	11.7	13.9
삼성중공업	5,027.4	19.9	7,980	0.5	2.0	-12.2	7.7	50.3	25.0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3,430.6	12.0	32,000	0.3	17.9	9.8	-6.3	11.2	11.2	0.9	0.8	9.0	6.9
현대미포조선	2,077.0	13.6	52,000	0.2	1.0	-8.9	-13.3	11.2	8.1	0.4	0.4	3.6	4.8
한진중공업	550.4	20.5	6,610	-1.9	-19.6	11.1	-20.1	133.0	33.2	1.0	0.9	0.7	2.8
현대엘리베이터	2,460.5	21.5	90,600	1.2	15.7	8.2	-15.3	16.0	15.6	2.2	2.0	14.6	13.3
두산밥캣	3,473.6	25.6	34,650	0.4	6.9	12.1	10.0	12.7	12.0	1.0	0.9	7.4	7.6
현대로템	1,827.5	4.0	21,500	0.5	13.5	-4.7	-22.8	27.7	18.9	1.2	1.2	4.5	6.3
하이룩코리아	223.9	46.6	16,450	-1.8	-9.6	-13.0	0.0	7.4	6.8	0.6	0.6	8.8	9.0
성광밴드	304.6	18.3	10,650	-1.4	-3.2	-3.2	-6.6	941.4	38.2	0.7	0.7	0.1	1.8
태광	266.3	11.6	10,050	-2.0	-6.1	-10.7	-14.1	60.0	29.3	0.6	0.6	1.0	2.1
두산중공업	1,342.3	12.9	6,640	0.9	8.1	-1.3	-20.9	-19.9	13.1	0.3	0.4	-0.1	1.8
두산인프라코어	1,394.7	16.8	6,700	1.1	1.8	-12.0	-11.7	4.6	5.0	0.7	0.7	17.7	13.6
HSD엔진	131.1	3.3	3,980	0.0	5.9	-18.6	-24.6	-10.4	-7.7	0.6	0.8	-4.7	-8.9
한국항공우주산업	3,484.7	16.8	35,750	1.6	16.8	-1.1	12.1	52.1	23.4	3.2	2.9	6.1	13.4
한화테크윈	1,688.6	14.8	32,750	1.7	7.7	0.8	0.8	135.7	25.7	0.7	0.7	0.6	2.8
LIG넥스원	761.2	7.5	34,600	0.3	4.1	-5.2	-6.4	79.7	N/A	1.6	N/A	2.4	3.7
태웅	201.1	3.9	10,050	-1.5	10.3	-2.0	-4.3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263.4	5.9	9,760	6.4	0.9	10.7	26.4	-20.6	15.1	3.6	2.9	-16.2	21.3
한국카본	392.1	14.5	8,920	2.6	6.6	4.3	26.7	138.9	29.3	1.3	1.3	0.9	4.3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Avin joins march of the makers with HHI suezmax order

Avin International은 올해 suezmax급 탱커를 발주한 6번째 그리스 선사로 등극함. Avin은 현대중공업에 15.8만DWT급 탱커 2척을 발주했고, 계약규모는 1.2억달러에 달한다고 알려짐. 인도는 2021년 초로 예정됨. 추가적인 옵션은 포함되지 않았고, 스크러버를 장착할 예정임. 발주처는 7년만에 발주를 재개한 선사임. (TradeWinds)

Trafigura in talks with Hyundai Heavy for LPG-fuelled VLGC duo

Trafigura는 대형 가스선 시장 강세를 예측하며, LPG추진 VLGC 2척 발주를 준비 중임.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에 발주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아직 정식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임. 발주하는 선박은 8.4만CBM급으로 예상되며, 적당 7,100만달러에 달함. VLGC 운임은 지난 3년간 부진했으나, 19년 상반기에 접어들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TradeWinds)

성동조선, 3차 매각시도도 불발...청산 가능성 무개

성동조선해양 매각을 위해 창원지방법원과 삼일회계법인은 인수희망서를 제출한 3곳을 두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나섰으나 실패함. 올해 2월 매각시도 때와 마찬가지로 인수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원인임. 3차 매각이 불발되면서 파산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며, 채권단은 추가 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알려짐. (조선비즈)

대우조선, 노르웨이 선급으로부터 LNG화물창 설계기술 인증 획득

대우조선해양은 노르웨이 선급협회 DNV-GL에서 독자 개발한 LNG 화물창 설계기술 솔리디스(Solidus)에 대해 실제 LNG선 적용에 적합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힘. 솔리디스는 17년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자체대 LNG 화물창으로, 독일 화학회사 BASF와 협력해 LNG 자연기화율을 현저히 낮춤. 대우는 또 다른 세계적 선급에서 추가인증 획득을 추진 중임. (뉴스1)

KSS해운, 8만4000CBM급 VLGC 신조계약 체결

KSS해운은 현대중공업과 8.4만CBM급 VLGC 1척에 대한 신조선 계약을 체결함. 앞서 KSS해운은 스페인 에너지 트레이딩 회사 VILMA OIL과 5~7년간 총 매출 1,150~1,610억원 규모의 장기운송계약 체결을 공시함. 해당 선박은 21년 1분기부터 투입될 예정임. KSS해운은 추가로 여러 용선주와 추가 운송계약 및 신조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힘. (EBN)

E&P on the move in Myanmar with new round on cards

미얀마 정부는 국내 에너지 수요증가와 수출을 늘리기 위해 E&P 투자를 준비 중임. 특히 Posco Daewoo는 Shwe Gas Phase 3 프로젝트 개발을 준비 중임. FEED(기초설계) 경쟁에 국내 조선 3사와 McDermott, Sembcorp Marine이 참여했고, 일부 업체는 엔지니어링 업체와 제휴할 전망이다. FEED 계약은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Upstream)

Wells Fargo: Orderbook closes in on 2022 LNG ship requirements

Wells Fargo는 LNG선 발주가 증가함에 따라 2022년에 필요한 LNG선 수주잔고 대부분 확보되었다고 분석함. 22년에 신규로 가동되는 LNG 프로젝트 생산량은 72.2MTPA로 LNG선 120~135척이 필요하나, 현재 수주잔고에 119척이 있는 상황으로 알려짐. 또 LNG선 수주잔고 중 용선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선박 비율이 전체 선대의 23%에 달함. (TradeWinds)

삼성·현대·대우중, 노르웨이와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합의

국내 조선 3사와 노르웨이 조선업체 및 선급업체 간 기술개발 등을 위한 MOU를 체결함. 삼성중공업은 DNV-GL과 자율운항 선박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에 합의함. 현대중공업은 도로 제조사인 Jotun과 선박의 친환경 도료 사용에 대해 협력할 예정임. 대우조선해양은 LNG선 화물창 설계시스템인 Solidus를 DNV-GL로부터 승인을 받음. (파이낸셜뉴스)

본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9년 6월 14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권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9년 6월 14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년 6월 14일 현재 본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박진한)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편면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